

“임서와 창작의 과정에서 얻는 희열 담아내고 싶었죠”

〈臨書·글씨본을 보면서 글씨를 씀〉

청각 장애 딛고 고희전 여는 창혜 강영화 서화가
4~10일 무등갤러리... 130여 작품 서화집도 발간

“이번 전시는 10년간의 학서(學書) 과정을 제 나름으로 표현해 본건데 작업 중 가장 큰 수확은 창작을 위한 기본을 꾸준히 닦는 데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할 바에는 치밀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네요.”

고희(古希)를 맞아 창혜(創惠) 강영화 서화가 기념전을 갖는다. 광주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4일부터 10일까지. (개막식은 4일 오후 5시30분)

이번 전시는 화갑전 이후 10년에 걸쳐 쓴 신작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강 작가는 전시와 맞물려 평생의 역작 가운데 130여 점을 모아 서화집도 발간했다.

전시를 앞두고 강 작가와 그동안의 작품 활동, 이번에 펴낸 서화집, 향후 계획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작가가 잘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질문지를 매개로 인터뷰를 나눴다)

사실 서예는 일반적인 회화와 달리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문적인 사유와 성찰 없이는 의미있는 ‘작품’을 세내기 어렵다.

강 작가는 “제 작품은 갈겨쓰거나 화려한 기교보다는 근본을 지키면서 생각과 감정을 붓 끝에 모아 표현한다”며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감정을 맘껏 쏟아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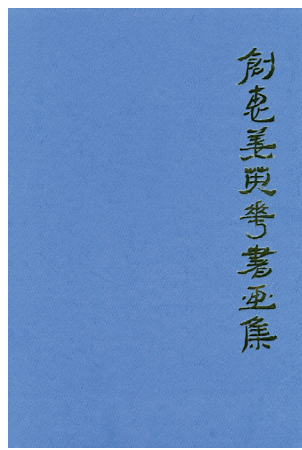
그는 오래 전 청각에 장애를 입어 잘 들을 수 없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원인 모르게 청력이 소실되어 갔다”는 말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묵묵히 열어나온 작가의 열정과 인고의 삶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예술은 보고 듣는 감각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 서예가가 견뎌왔을 지난한 시간을 기쁘게 하는 어려울 것 같다.

초등학교 때는 옆 친구의 노트를 보고 필기를 하고,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초, 중, 고, 대학교를 졸업했다.

“대학(한양대) 시절 저에게 맞는 동아리로 ‘서예’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 벌써 50년 되도록 붓을 잡고 있지요. 처음엔 그림을 그려 볼까 해서 목포의 남농 선생님께 다녔는데, 도록에 나온 학정 선생님 작품(심전경작)에 끌려 화



강영화 서화가



創惠 墨與筆 書畫集



‘松老千年色 天長萬里心’

제를 배우면서 선생님께 별세할 때까지 인연을 이어왔죠.”

이번 서화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한번쯤 새겨들을 법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 아마도 그 또한 현한 예술의 길을 걸어오며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고 뜻을 헤아렸을 것이다.

채근담에 나오는 ‘榮極難久’는 오늘 세상에 새겨들을 만하다. “정려하면서 도저히 느긋하고, 어질면서도 능히 결단력이 있으며, 사리에 밝으면서도 까다롭게 밝히지 않고, 곧으면서도 지나치게 고치려만 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바름을 식이 지나치게 달지 않고, 해물이 지나치게 짜지 않음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다.”

이밖에 ‘서리가 내려도 소나무는 항상 푸르다’, ‘성경 시편 23편’ 등 주옥같은 명언을 특유의 필법으로 갈무리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강 작가는 오랫동안 예서체에 천착해 기본 3비

(사신비, 예기비, 율영비)에 석문송, 장천비의 독특한 기본을 살렸다”며 “행초를 쓸 때 무의식적으로 한간(韓簡)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했다.

미술평론가 김찬호 경희대학교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인전에 대해 “임서와 창작의 과정에서 얻는 희열”은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며 “임서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작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을 보는 여백을 모방하는 것이다”고 평한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강 작가는 앞으로 10년의 계획을 세워 더 나은 작품세계로 나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그동안 중앙, 지방에서 부지런히 활동을 했다. 예술에 정진하는 동안 “장애인이란 사실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자연히 실력도 붙었다”는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 전통예술의 멋, 춤사위와 가락에 깃들다

남도전통춤가락연구원, 11일 빛고을국악전수관

허공으로 밀어 올리는 버선발과 곡선이 아름답다. 마음이 고와야 춤도 아름답다는 뜻의 ‘무향심선(舞香心善)’의 경지가 떠오르는 것만 같다. 활짝 펼쳐진 죽선(竹扇)에는 남도 기품이 깃들어 있고, 끌어 올리는 치맛자락과 어우러지는 힘 있는 춤사위는 남도만의 신명을 선사한다.

남도전통춤가락연구원(원장 박순영)이 공연 ‘2024남도전통춤가락의 멋과 소리’를 오는 11일 오후 7시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펼친다.

남도의 전통춤과 가락을 담은 이번 공연은 동서양의 크로스오버부터 창작무, 국악 가요와 앙상블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박순영 원장과 김미경 단원이 추는 한국전통무용 창작무 ‘송향’(사랑무)으로 막을 연다. 춘향과 이도령의 절절한 사랑을 담은 춤으로 이목을 끈다. 이어 국악가요 ‘여인과 배 띄워라’는 전남도립국악단 창작무 부수석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정산리 벽계수가 수이감을 자랑 마라/ 일도창해 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 한데 쉬어 간들 어떠하리”

황진이의 시조 ‘벽계수’ 등을 모티브로 한 ‘황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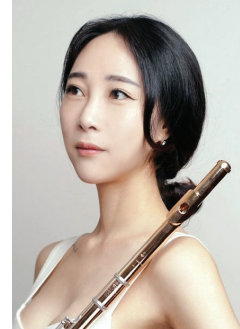
남도전통춤가락연구원 박순영 원장

이와 벽계수’도 레퍼토리에 있다. 황진이 역에 박순영, 벽계수 역에 김미경 등이 출연한다.

이 밖에도 국악 앙상블 ‘아리랑’, ‘봄이 온다면’은 노래하는 플루티스트 나리가 들려줄 예정이다. 한량들이 놀이판에서 추던 전통무용 ‘신랑랑무’(임이조류 무형문화재 97호)도 볼 수 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류효진 학예연구사는 “남도 전통춤을 기본으로 우리 소리, 현대의 선율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신랑랑무’, ‘송향’ 등 주옥같은 작품들을 만나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플루티스트 나리

‘이건희 기증품’ 전국 박물관서 만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보·보물 등 2254점 광주박물관 등 10곳에 이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서화, 조각, 도자 등을 광주박물관 등 전국 국립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

광주박물관에서는 당시 선비들의 기개를 표현한 듯 하얀 바탕 위에 대나무 그림을 그린 국보 ‘백자 청화죽문 각병’가 선보일 예정이다. 도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큰 의미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문화유산 총 936건 2254점을 소속 국립박물관 10곳으로 옮겨 상설 전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소속 관으로 옮기는 기증품 가운데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13건 107점이다.

청동기 시대에 의례나 의식을 행할 때 흔들며 소리를 내던 청동 방울로, 충남 논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국보 ‘전(傳) 논산 청동방울 일괄’은 부여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다.

대구박물관에는 국보 ‘대구 비산동 청동기 일괄’과 보물 ‘전 고령 일괄 유물’이 전시돼 경북 지역 고대 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박물관은 각 지역 박물관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유물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으로부터 입수했다고 전하는 보물 ‘금동여래입상’은 경주박물관에 전시해 신라의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데 활용한다.

다양한 회화 작품으로 명성을 날린 화가 채용신(1850~1941)이 1920년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간재(艮齋) 전주(1841~1922)의 초상 등은 전주박물관으로 터를 옮길 계획이다.

고 이건희 회장이 평생에 걸쳐 모은 돌도 곳곳으



국보 ‘백자 청화죽문 각병’

로 흩어져 지역 주민과 만날 전망이다.

기증받은 석조물 가운데 일부는 현재 청주박물관(102건 203점), 제주박물관(28건 55점), 공주박물관(20건 26점), 대구박물관(2건 5점), 전주박물관(18건 35점)에 각각 전시돼 있다.

올해는 청주박물관에 122건 210점, 대구박물관에 141건 255점을 추가로 전시하고 광주박물관에는 26건 47점을 새롭게 뒤 석조 문화유산의 멋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물은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옮겨 상설 전시·특별 전시 등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작가와 편한 북토크

ACC 도서관과 이야기, 13일 ACC 극장3

김호연(사진)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은 동네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설이다. 지난 2022년 전남대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돼 시도민들이 함께 읽으며 토론과 공감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특히 소설은 노숙자를 주인공으로 아픈 삶을 애정어린 서사로 풀어내 주목을 받았다. 특정 연령대만 공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연령층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불편한 편의점’은 국립중앙도서관 ‘2022 올해의 책’에 선정됐으며 1·2권 통합 150만부 판매 기록을 세웠다. 현재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 21개국에서 번역돼 출간됐다.

김호연 작가 초청 북토크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진행하는 ‘ACC 도서관과 이야기: 불편한 편의점, 편한 북토크’에 김호연 작가가 나선다. 오는 13일 오후 2시 ACC 극장3.

김 작가는 ‘소설가의 삶과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김 작가는 2013년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영화, 만화, 소설을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를 스토리로 엮어냈다.

한편 ACC는 미니 원화전도 함께 기획해 복합 콘텐츠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알린다는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장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MODERN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